

임오군란과 갑신정변

- 。 1876년 '조·일수호조규'에 의해 개항 이후, 서양열강과의 통상교섭 확대
 -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(1878년부터)
 - 1880년 최초의 신식 정부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 설치
 - 1881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 창설

1) 임오군란

- 。 임오군란의 배경: 왜 이런 일이 생겼나?
 -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구조: 도시 하층민들에게 집중적인 피해
 - 하급 군병들의 생활조건: 군병들의 급료 지급 문제, 별기군의 창설로 실직 및 도태에 대한 위기의식
- 。 발단: 1882년 6월 5일 이른바 도봉소 사건

。 전개과정

- 정부는 무위대장 이경하를 파견, 설득 및 회유 시도
- 저항운동의 주요 공격목표: 민씨 척족 세력(명성황후) & 일본(상권독점 및 곡물 유출)
- 일본 공사관 공격
- ∴ 흥선대원군 재집권

。 청과 일본의 개입

- 청국은 3,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, 흥선대원군 납치
- 종주권을 주장, 조선 속방화를 위한 적극 간섭정책
- 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

2) 갑신정변

。 갑신정변의 배경

- 청국의 조선 자주독립의 침해
- 개화파의 자주근대화정책에 대한 청국 및 민비 수구파의 저지와 탄압
- 개화파의 구상: 구미세력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고자, 그러나 구미 열강과의 국교 수립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

。 갑신정변의 전개과정

-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봄
- 1884년 여름, 국제정세가 '정변' 단행에 유리하게 전개: '청·불전쟁'
- 1884년 8월 '청·불전쟁' 발발 → 일본 공사관의 갑작스러운 지원
- 1884년 10월 11일~10월 14일, 거사 행동 계획 수립
-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거사 단행, 이튿날 혁신정강 발표

- 。 혁신정강 14개조: 개혁정치의 의지와 기본내용 집약

- 제1조는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거부함과 동시에, 1882년 이전의 조공허례의 의식도 폐지할 것 → 자주 독립국가 지향
- 제2조 ‘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,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’ → ①양반신분제도의 폐지에 의한 국민평등 권리의 제정, ②문벌제도의 폐지, ③인재의 등용
- 제13조 ‘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’과, 제14조 ‘정부는 六曹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’과, 제4조 ‘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’ → ①내각제도의 수립, ②정부조직의 개편 등의 정책 대강
- 제12조 ‘모든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’과, 제3조 ‘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소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검하여 국가재정을 유족케 할 것’과, 제6조 ‘각 도의 還上制度는 영구히 폐지할 것’과, 제9조 ‘惠商公局을 폐지할 것’ → ①재정의 호조로의 통일, ②지세제도 개혁을 비롯한 조세제도의 개혁, ③환자(환곡)제도의 폐지, ④보부상 등 전근대적 특권상업제도의 폐지, 근대적 자유산업을 장려하고 재정제도와 경제제도를 근대적 방향으로 개혁

。 청국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

- 일본 측의 입장 변경
- 청국 군대의 공격 시작
→ ‘3일 천하’

。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

- ① 청군의 불법적 범결과 군사적 공격
- ② 일본군 借兵의 실책과 일본군의 배신적 철병
- ③ 개화 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
- ④ 명성황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정변수행 기술의 미숙